

유아의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비교*

성 미 영¹

A Comparison of Effects of Playfulness, Emotional Control,
Emotional Instability on Young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Sung, Mi Young¹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 및 5세 유아 20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놀이성척도'를,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규제체크리스트'를, 또래놀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놀이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증,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은 정서통제와 놀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아의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정서불안정과 놀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관련 변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과제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또래놀이행동,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유아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¹ 제1저자(교신저자) :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minie@skuniv.ac.kr)

I. 서론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구성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이 선호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래와 놀이를 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과 같은 행동 특성을 또래 놀이행동이라고 정의한다(Fantuzzo, Coolahan, Mendez, & Sutton-Smith, 1988).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에 참여할 경우 놀이상대방인 또래와 놀이를 유지하기 위해 놀이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놀이를 방해하거나 이를 단절시키는 행동을 하면서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놀이를 방해하게 되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놀이를 단절시키거나 중단시킨다(Cohen & Mendez, 2009). 이러한 결과는 또래놀이행동이 또래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준다. 유아기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또래수용(Lindsey, 2014)뿐 아니라 긍정적인 학습행동(Coolahan,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과도 관련이 있고, 유아기의 또래놀이행동의 상호작용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업성취 점수도 높다(Hampton & Fantuzzo, 2003)는 측면에서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이 시기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놀이성(playfulness)을 들 수 있다. 놀이성은 유아의 놀이와 관련된 개념 중 유아의 놀이행동을 유발시키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놀이성은 유아의 놀이 성향으로 개인차와 관련된 심리적인 개념을 의미하는데(Rogers, 1988),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놀이성에 포함되는 하위요소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놀이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놀이성은 유아의 놀이행동이나 문제행동, 사회적 능력, 상호작용 등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밝혀졌다(김명순, 유정은, 이민주, 조항린, 2011; 김수미, 최진아, 2015; 박화윤, 마지순, 천은영, 2004; 안효진, 임연진, 2010; 우수경, 2013; 지성애, 김승희, 2010; Chiarello, Huntington, & Bundy, 2006; Rentzou, 2013; Saunders, Sayer, & Goodale, 1999). 예를 들어, 유아의 사회적 놀이행동은 놀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놀이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놀이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Rentzou, 2013), 유아의 놀이성 수준이 낮을수록 혼자놀이를 많이 하고 놀이성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순 등, 2011). 또한,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이 높은 유아의 경우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문제행동, 과잉·산만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안효진, 임연진, 2010), 놀이성 수준이 높은 유아가 놀이성 수준이 낮은 유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수경, 2013).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유아의 놀이성 수준에 따라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놀이행동이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놀이를 방해하거나 단절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을 유발하는지가 달라질 것이다. 즉 신체적 자발성이 높은 유아는 공격적이거나 산만한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되므로 또래와의 놀이를 방해하게 되며, 놀이성 수준이 낮은 유아는 혼자놀이를 많이 하므로 놀이상황에서 놀이가 유지되기 어렵다. 또한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놀이행동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박화윤 등, 2004)에 의하면 놀이성의 요소 중 사회적, 인지적 자발성은 놀이상호작용을, 신체적, 사회적 자발성과 유아 감각은 놀이방해를, 그리고 사회적 자발성은 놀이단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의 놀이성은 또래놀이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영향 요인과 비교하여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 이외에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의 요인과 비교하여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놀이를 방해하거나 단절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놀이상대방인 또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 정서를 내세우기보다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러한 능력이 바로 자기규제능력이다. 자기규제능력은 자신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외부의 감독이 없어도 규칙을 지키려는 능력을 의미한다(정은주, 2005; Bron, 2000; Shields & Cicchetti, 1997). 유아가 자신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해 혼자놀이를 하는 등 또래관계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유아가 자신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놀이방해와 같은 부정적인 놀이행동은 적게 나타났다(김선희, 김경연, 1999; 엄정애, 2004; 황윤세, 2007; 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Olson & Kashiwagi, 2000; Rubin, Bukowski, & Paker, 2001).

자기규제능력은 행동적,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행동적 자기규제능력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규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은 내적 정서 상태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Dennis, 2006; Rubin, Coplan, Fax, & Calkins, 1995).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은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으로 구분되는데, 정서통제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할수록 놀이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또래놀이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Cohen & Mendez, 2009; Denham et al., 2003; Eisenberg et al., 2001). 정서적 자기규제능력 중 정서불안정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어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정서를 빈번하게 표현함으로써 놀이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hen & Mendez, 2009; Lemerise & Arsenio, 2000; Spinrad et al., 2004; Troxel, Trentacosta, Forbes, & Campbell, 2013).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은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원만하고 활발하게 놀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놀이 과정에서 또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정서를 내세우기보다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므로 행동적 자기규제보다 정서적 자기규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할 경우 정서 상태와 정서적 표현행동이 일치하지 못하여 놀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래와의 놀이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또래와의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자기규제능력 중 행동적 자기규제능력보다는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정서통제와 정서불안정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아의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이 또래놀이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 결과가 제시

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의 하위요소인 정서통제와 정서불안정 중 어떤 요소가 또래놀이행동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게 주어졌다. 유아의 정서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놀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Cohen & Mendez, 2009; Denham et al., 2003; Eisenberg et al., 2001)을 고려할 때, 또래놀이행동 중 긍정적인 놀이행동에 해당하는 놀이상호작용은 정서통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불안정한 정서를 보임으로써 놀이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Cohen & Mendez, 2009; Hoffmann & Russ, 2012; Lemerise & Arsenio, 2000)을 고려할 때, 또래놀이행동 중 부정적 놀이행동인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정서불안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정서통제와 정서불안정 수준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을 포함한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의 연령차에 관한 연구들(박호선, 2002; 이지희, 김혜연, 2012; 정은주, 2005; Granlinski & Kopp, 1993; Kopp, 1989)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유아의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이 나이가 어린 유아의 정서적 자기규제능력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이 발달한다는 결과와 더불어,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에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 또래놀이행동의 경우에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놀이상호작용은 만 4세보다 만 5세 유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김정림, 허미경, 2013; 이지희, 김혜연, 2012),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만 5세 유아보다 만 4세 유아에게서(김정림, 허미경, 2013), 그리고 나이 많은 유아보다 나이 어린 유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으나(Mendez, McDermott, & Fantuzzo, 2002) 대부분의 연구(박화운 등, 2004; 신은수 등, 2010; 장윤희, 문혁준, 2011)가 만 4세 또는 만 5세의 단일 연령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거나 연령차를 살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놀이성의 경우에도 놀이성 수준에 따른 또래놀이행동의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고윤지, 김명순, 2013; 박화운 등, 2004; 최소영, 신혜영, 2015)를 위주로 진행되어 연령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일부 선행연구결과에서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 또래놀이행동에서의 연령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으나, 변인에 따라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각 변인의 연령차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해볼 때 유아의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은 또래와의 놀이에서 유아의 보이는 놀이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 중 어떤 요인이 또래놀이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 첫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만 4세 유아의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셋째, 만 5세 유아의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및 5세 유아 20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유아의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류층 가정의 유아가 채원 중인 서울시의 직장어린이집 4곳에서 유아 20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그 자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 99명(40.4%), 여아 110명(52.6%)이었고, 연령은 만 4세가 104명(49.8%), 만 5세가 105명(50.2%)이었다. 만 4세 유아의 평균 월령은 54.37개월($SD=2.64$)이고 월령범위는 49~59개월이었으며, 만 5세 유아의 평균 월령은 65.30개월($SD=1.58$)이고 월령범위는 62~70개월이었다.

2. 연구도구

1) 정서통제

정서통제란 내면적인 정서상태의 규제에 초점을 둔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의 하위요소로 유아 자신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Shields와 Cicchetti (1997)가 개발한 정서규제체크리스트(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번안하여 사용한 박혜성(2011)의 척도 24문항 중 정서통제 관련 9문항을 사용하여 담임교사가 유아의 정서통제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정서통제 측정도구를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이 문항의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유아의 정서통제 9문항(예, 자신의 욕구가 바로 채워지지 않아도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은 경우 정서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통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2) 정서불안정

정서불안정이란 내면적인 정서상태의 규제에 초점을 둔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의 하위요소로 정서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정서규제체크리스트(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번안하여 사용한 박혜성(2011)의 척도 24문항 중 정서불안정 관련 15문항을 사용하여 담임교사가 유아의 정서불안정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정서불안정 측정도구를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이 문항의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정서불안정 15문항(예, 폭발하듯이 화를 내며 쉽게 짜증내는 경향이 있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은 경우 정서불안정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정서불안정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3) 놀이성

놀이성이란 유아의 놀이를 놀이행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성향 또는 태도를 의미하는데(Barnett, 1990), 본 연구에서는 Barnett(1991)이 개발한 유아의 놀이성 척도를 유애열(199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였다. 놀이성 척도는 신체적 자발성 4문항(예, 놀이 중에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 사회적 자발성 5문항(예, 놀이 도중 다른 친구의 접근에 쉽게 반응한다), 인지적 자발성 4문항(예, 놀이 도중 자기 나름대로의 놀이방법을 찾아낸다), 즐거움의 표현 5문항(예, 놀이 도중 만족감을 보여준다), 유머감각 5문항(예, 다른 친구와 농담한다), 총 23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은 경우 놀이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놀이성 척도의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하위영역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 .78, .76, .70, .73$ 이었다.

4) 또래놀이행동

또래놀이행동이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 특성으로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도하거나 반응할 때 보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적 놀이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oolahan 등(2000)이 개발한 또래놀이행동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한국에서 타당화한 최혜영과 신혜영(2011)의 또래놀이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을 측정하였다.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놀이상호작용 9문항(예,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놀이방해 13문항(예, 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놀이단절 8문항(예,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의 리커트형 척도이며, 놀이상호작용 문항의 점수가 높은 경우 또래 간 놀이상호작용이 활발함을 의미하고,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이 더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래놀이행동 척도의 하위영역인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 .89, .91, .90$ 이었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본조사 이전 예비조사를 위해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한 곳을 방문하여 교사 4명을 대상으로 만 4세 및 5세 유아 2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질문지를 완성한 후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연구대상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일주일 후 다시 방문하여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배부된 총 300부의 질문지 중 회수되지 않거나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0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 또래놀이행동 척도는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t-검증, Person의 적률상관계수, 단계적 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이 사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또래놀이행동,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의 차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또래놀이행동,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또래놀이행동의 하위영역 중 놀이상호작용($t = -2.02, p < .05$)과 놀이단절($t = 2.12, p < .05$)에서, 놀이성의 하위영역 중 신체적 자발성($t = 2.14, p < .05$), 사회적 자발성($t = -2.55, p < .05$), 인지적 자발성($t = -3.18, p < .01$)에서 연령차가 유의하였고, 그리고 유아의 정서통제($t = -.29, p < .01$), 정서불안정($t = 2.09, p < .05$)에서 연령차가 유의하였다. 이와 달리 놀이성의 하위영역 중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그리고 또래 놀이행동의 하위영역 중 놀이방해에서는 연령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만 5세 유아는 만 4세 유아보다 놀이상호작용,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정서통제 수준은 더 높으나, 놀이단절, 신체적 자발성, 정서불안정 수준은 만 4세 유아보다 더 높았다.

<표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또래놀이행동,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의 차이 (N=209)

구분	만 4세	만 5세	전체	<i>t</i>	
또래 놀이 행동	놀이상호작용	26.65(5.74)	28.10(4.59)	27.38(5.23)	-2.02*
	놀이방해	19.36(5.92)	18.53(5.21)	18.94(5.58)	1.07
	놀이단절	10.24(3.97)	9.29(2.35)	9.76(3.29)	2.12*
놀이성	신체적 자발성	16.76(2.92)	15.91(2.33)	16.33(2.67)	2.14*
	사회적 자발성	19.14(3.61)	20.26(2.64)	19.70(3.20)	-2.55*
	인지적 자발성	13.86(2.98)	15.01(2.21)	14.44(2.68)	-3.18**
	즐거움의 표현	21.32(2.83)	21.79(2.61)	21.56(2.72)	-1.26
	유머감각	18.91(3.47)	18.88(3.27)	18.89(3.37)	.08
정서통제	33.74(5.38)	35.75(4.49)	34.75(5.05)	-.29**	
정서불안정	29.01(8.53)	26.54(8.54)	27.77(8.60)	2.09*	

* $p < .05$, ** $p < .01$.

2. 만 4세 유아의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만 4세 유아의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만 4세 유아의 경우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은 정서통제($r = .72, p < .01$)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정서불안정($r = -.47, p < .01$)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고, 놀이성의 하위영역 중 신체적 자발성($r = .34, p < .01$), 사회적 자발성($r = .73, p < .01$), 인지적 자발성($r = .45, p < .01$), 즐거움의 표현($r = .60, p < .01$), 유머감각($r = .42, p < .01$)과는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방해는 정서불

<표 2> 만 4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의 상관관계 (N=209)

또래 놀이행동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놀이 상호작용	.34**	.73**	.45**	.60**	.42**	.72**	-.47**
놀이방해	.34**	-.06	-.04	.06	.42**	-.18	.72**
놀이단절	-.33**	-.63**	-.34**	-.38**	-.28**	-.46**	.46**

** $p < .01$.

안정($r = .72,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놀이성의 하위영역 중 신체적 자발성($r = .34, p < .01$), 유머감각($r = .42,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단절은 정서불안정($r = .45,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정서통제($r = -.46, p < .01$)와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고, 놀이성의 하위영역 중 신체적 자발성($r = -.33, p < .01$), 사회적 자발성($r = -.63, p < .01$), 인지적 자발성($r = -.34, p < .01$), 즐거움의 표현($r = -.38, p < .01$), 유머감각($r = -.28, p < .01$)과는 모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4세 유아의 경우 정서불안정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통제 수준과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정도가 높을수록 놀이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또한 만 4세 유아는 정서불안정, 신체적 자발성, 유머감각 정도가 높을수록 놀이방해 행동을 더 자주 보였고, 정서불안정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서통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정도가 낮을수록 놀이단절 행동을 더 자주 보였다.

만 4세 유아의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을 독립변인으로, 또래놀이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만 4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공차한계는 .48~.99, VIF 지수는 1.00~1.67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되었다.

먼저, 만 4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놀이상호작용을 종속변수로,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 4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자발성($\beta = .43, p < .001$), 정서통제($\beta = .33, p < .001$), 즐거움의 표현($\beta = .20, p < .01$)으로 나타났으며, 정서불안정,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유머감각은 놀이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자발성의 설명력은 52.6%였고, 정서통제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11.5%, 즐거움의 표현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2.4% 증가하여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자발성, 정서통제, 즐거움의 표현의 전체 설명력은 66.5%였으며,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영향력은 사회적 자발성이 가장 컸다.

<표 3> 만 4세 유아의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N=209)

구분	모형	독립변수	B	β	R ²	ΔR^2	F
놀이 상호 작용	1	사회적 자발성	1.15	.73***	.53	.53	112.99***
	2	사회적 자발성	.72	.46***	.64	.12	89.97***
		정서통제	.46	.43***			
	3	사회적 자발성	.68	.43***	.67	.02	66.02***
		정서통제	.35	.33***			
		즐거움의 표현	.40	.20**			
놀이 방해	1	정서불안정	.50	.72***	.51	.51	106.40***
	2	정서불안정	.48	.69***	.65	.14	95.12***
		유머감각	.65	.38***			
	3	정서불안정	.49	.70***	.67	.02	67.44***
		유머감각	.47	.28***			
		신체적 자발성	.33	.16*			
놀이 단절	1	사회적 자발성	-.69	-.63***	.39	.39	65.84***
	2	사회적 자발성	-.59	-.53***	.44	.04	38.90***
		정서불안정	.11	.23**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만 4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방해에 미치는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놀이방해를 종속변수로,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 4세 유아의 놀이방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불안정($\beta = .70, p < .001$), 유머감각($\beta = .28, p < .001$), 신체적 자발성($\beta = .16, p < .01$)으로 나타났다. 정서통제,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방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의 놀이방해에 대한 정서불안정의 설명력은 51.1%였고, 유머감각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14.3%, 신체적 자발성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1.6% 증가하여 놀이방해에 대한 정서불안정, 유머감각, 신체적 자발성의 전체 설명력은 66.9%였으며, 놀이방해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정서불안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 4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단절을 종속변수로,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 4세 유아의 놀이단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자발성($\beta = -.53, p < .001$)과 정서불안정($\beta = .23, p < .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통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만 4세 유아의 놀이단절에 대한 사회적 자발성의 설명력은 39.2%였고, 정서불안정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4.3% 증가하여 놀이단절에 대한 사회적 자발성과 정서불안정의 전체 설명력은 43.5%

였으며, 놀이단절에 대한 영향력은 사회적 자발성이 가장 컸다.

3. 만 5세 유아의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만 5세 유아의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만 5세 유아의 경우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은 정서통제($r = .69, p < .01$)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정서불안정($r = -.40, p < .01$)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고, 놀이성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자발성($r = .70, p < .01$), 인지적 자발성($r = .56, p < .01$), 즐거움의 표현($r = .43, p < .01$), 유머감각($r = .29, p < .01$)과는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방해는 정서불안정($r = .83,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놀이성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자발성($r = -.38, p < .01$), 즐거움의 표현($r = .21, p < .01$), 유머감각($r = .31,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단절은 정서불안정($r = .38,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정서통제($r = -.41, p < .01$)와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고, 놀이성의 하위영역 중 신체적 자발성($r = -.20, p < .01$), 사회적 자발성($r = -.65, p < .01$), 인지적 자발성($r = -.35, p < .01$), 즐거움의 표현($r = -.23, p < .01$), 유머감각($r = -.19, p < .01$)과는 모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5세 유아의 경우 정서불안정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통제 수준과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정도가 높을수록 놀이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또한 만 5세 유아는 정서불안정,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정도가 높을수록 놀이방해행동을 더 자주 보였고, 정서불안정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서통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정도가 낮을수록 놀이단절행동을 더 자주 보였다.

<표 4>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의 상관관계 (N=209)

또래 놀이행동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놀이 상호작용	-.10	.69**	.56**	.43**	.29**	.69**	-.40**
놀이방해	.15	-.38**	-.01	.21*	.31**	-.57**	.83**
놀이단절	-.20*	-.65**	-.35**	-.23**	-.19	-.41**	.38**

* $p < .05$, ** $p < .01$.

만 5세 유아의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을 독립변인으로, 또래놀이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정서통제, 정서불

〈표 5〉 만 5세 유아의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N=209)

구분	모형	독립변수	B	β	R ²	ΔR^2	F
놀이 상호작용	1	사회적 자발성	1.21	.69***	.48	.48	95.32***
	2	사회적 자발성	.77	.44***	.60	.12	76.11***
		정서통제	.44	.43***			
	3	사회적 자발성	.96	.55***	.64	.04	60.46***
		정서통제	.35	.35***			
		신체적 자발성	-.45	-.23**			
	4	사회적 자발성	.79	.45***	.67	.03	51.73***
		정서통제	.31	.30***			
신체적 자발성		-.54	-.27***				
인지적 자발성		.48	.23**				
놀이 방해	1	정서불안정	.51	.83***	.69	.69	226.79***
	2	정서불안정	.49	.81***	.74	.06	148.45***
		유머감각	.38	.23***			
	3	정서불안정	.44	.72***	.78	.03	117.92***
		유머감각	.51	.32***			
		사회적 자발성	-.43	-.22***			
놀이 단절	1	사회적 자발성	-.57	-.65***	.42	.42	73.18***
	2	사회적 자발성	-.52	-.58***	.44	.02	39.73***
		정서불안정	.05	.16*			

* $p < .05$, ** $p < .01$, *** $p < .001$.

안정, 놀이성의 공차한계는 .47~.99, VIF 지수는 1.01~1.82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되었다.

먼저,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놀이상호작용을 종속변수로,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 5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자발성($\beta = .45$, $p < .001$), 정서통제($\beta = .30$, $p < .001$), 신체적 자발성($\beta = -.27$, $p < .001$), 인지적 자발성($\beta = .23$, $p < .01$)이었고, 정서불안정,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은 놀이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만 5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자발성의 설명력은 48.1%였고, 정서통제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11.8%, 신체적 자발성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4.4%, 인지적 자발성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3.2% 증가하여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자발성, 정서통제,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의 전체 설명력은 67.4%였으며,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적 자발성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방해에 미치는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놀이방해를 종속변수로,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을 독립변수로 하

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 5세 유아의 놀이방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불안정($\beta = .72, p < .001$), 유머감각($\beta = .32, p < .001$), 사회적 자발성($\beta = -.22, p < .001$)이었고, 정서통제,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방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만 5세 유아의 놀이방해에 대한 정서불안정의 설명력은 68.8%였고, 유머감각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5.7%, 사회적 자발성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3.4% 증가하여 놀이방해에 대한 정서불안정, 유머감각, 신체적 자발성의 전체 설명력은 77.8%였으며, 놀이방해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정서불안정이 가장 컸다.

마지막으로,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단절에 미치는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놀이단절을 종속변수로,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 5세 유아의 놀이단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자발성($\beta = -.58, p < .001$)과 정서불안정($\beta = .16, p < .0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통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유아의 놀이단절에 대한 사회적 자발성의 설명력은 41.5%였고, 정서불안정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설명력은 2.3% 증가하여 놀이단절에 대한 사회적 자발성과 정서불안정의 전체 설명력은 43.8%였으며, 놀이단절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적 자발성이 가장 컸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 또래놀이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유아의 연령별로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 수준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만 4세 및 5세 유아 20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 또래놀이행동에서 만 4세 유아와 만 5세 유아 간에 연령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만 5세 유아는 만 4세 유아보다 정서통제,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놀이상호작용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정서불안정, 신체적 자발성, 놀이단절 정도는 만 4세 유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 또래놀이행동에 연령차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정립, 허미경, 2013; 박호선, 2002; 정은주, 2005; Kopp, 1989)를 지지한다. 특히, 정서통제능력의 연령차에 관한 선행연구들(박호선, 2002; 정은주, 2005; Kopp, 1989)에서 나이가 많은 유아의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이 나이가 어린 유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만 5세 유아의 정서통제능력이 만 4세 유아보다 더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처럼 정서통제에서 나타난 연령차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정서적 경험과 표현을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놀이상황에서 부정적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래놀이행동에서 만 5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이 만 4세 유아보다 더 활발한 반면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이나 단절시키는 행동은 만 4세 유아보다 만 5세 유아보다 더 많이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놀이행동에서 연령차가 존재함을 보여준 선행연구결과(김정립, 허미경, 2013; 이지희, 김혜연, 2012)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또래놀이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신은수 등, 2010)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발달하면서 놀이상황에서 놀이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행동보다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만 4세 유아와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은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연령 간 관계의 양상은 놀이성과 또래놀이행동의 하위영역별로 동일하거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먼저 놀이상호작용의 경우에는 만 4세와 만 5세 유아 모두 정서불안정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통제 수준과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정도가 높을수록 놀이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만 4세 유아의 경우에는 신체적 자발성 정도가 높을수록 놀이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다음으로 놀이방해의 경우 만 4세 유아는 정서불안정, 신체적 자발성, 유머감각 정도가 높을수록 놀이방해행동을 더 자주 보였고, 만 5세 유아는 정서불안정,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정도가 높을수록 놀이방해행동을 더 자주 보였다. 마지막으로 놀이단절의 경우 만 4세와 만 5세 유아 모두 정서불안정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서통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정도가 낮을수록 놀이단절행동을 더 자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불안정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놀이행동에서 놀이방해나 놀이단절이 더 자주 발생하며, 정서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은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Cohen & Mendez, 2009)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유아의 정서적 자기규제능력과 또래놀이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만 4세와 5세 유아 모두 사회적 자발성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통제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놀이상황에서 또래에게 반응적으로 행동하고 협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하는 유아는 놀이를 긍정적이고 활발하게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다른 변인의 영향력 여부는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서 만 4세 유아의 경우에는 즐거움의 표현이, 만 5세 유아의 경우에는 신체적, 인지적 자발성이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의 경우 자신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 놀이를 더 지속시킨 반면 만 5세 유아는 놀이 중에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이 놀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신체적 자발성이 높을 경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과잉·산만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안효진, 임연진, 2010)를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 만 4세보다 만 5세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만 4세의 긍정적 놀이상호작용이 더 활발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서를 잘 통제하는 유아는 놀이상호작용을 지속시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서통제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점검하고 강한 각성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여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Kopp, 1989) 정서통제능력이 뛰어나도록 놀이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인지하고 표현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Denham et al., 2003; Eisenberg et al., 2001)를 지지한다.

넷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방해에 미치는 정서통제, 정서불안정, 놀이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만 4세 및 5세 유아 모두 정서불안정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정서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유아의 경우 놀이를 방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놀이방해 행동은 자신의 정서가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공격적 성향이 강한 경우에 나타나므로 유아의 정서불안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놀이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규제하는 능력은 사회적 유능성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서를 잘 통제할수록 놀이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Cohen & Mendez, 2009), 행동규제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다는 결과(지성애, 윤현숙, 박은영, 홍지명, 문수강, 공진희, 2006)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규제하는 능력이 낮을 경우 또래와의 놀이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에서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공격적인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 놀이방해로 이어지게 된다(안효진, 임연진, 2010). 또래와의 놀이에서 지속적으로 놀이방해행동을 할 경우 이 유아는 다른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고, 이는 또 다시 놀이방해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아가 보이는 위축, 회피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놀이단절행동은 만 4세 유아와 만 5세 유아 모두 사회적 자발성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서불안정이 만 4세 및 5세 유아의 놀이단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놀이행동에서 놀이성 수준이 낮을수록 혼자놀이를, 놀이성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놀이를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결과(고윤지, 김명순, 2013; 김명순 등, 2011)에 의해 설명해 볼 수 있다. 놀이단절행동은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놀이단절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집단놀이에 참여하기 힘들어함을 의미한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 놀이성 요소 중 사회적 자발성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자발성이란 놀이 중에 또래의 접근에 잘 반응하고 놀잇감을 공유하며 협동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러한 능력이 뒤떨어지는 유아는 놀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유아는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뒤떨어져서 놀이상황에서도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주 표출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놀이에서 또래로부터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 또래와의 놀이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래와의 놀이 맥락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발달하며, 또래와 놀이를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유능성이 증진될 수 있다. 유아가 놀이에서 또래와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경우 이는 이후의 긍정적인 사회성발달을 예측하는 반면 (Howes & Leslie, 1998; Mendez et al., 2002), 유아가 놀이에서 또래와 부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경우 이는 이후의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4; Parker & Asher, 1987), 또래와의 놀이는 유아의 이후 발달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부정적인 행동인 놀이방해나 놀이단절을 감소시키는 영향 요인이 정서통제능력과 정서불안정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정서통제능력을 강화시키고 정서불안정을 감소시키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유아와 또래가 놀이를 할 때 교사가 사용하는 지도방식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자유놀이시간에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에서 놀이방해행동이나 놀이단절행동을 보일 경우, 그 원인이 유아의 정서적 자기규제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유아가 자신의 공격적인 정서를 또래에게 표현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의 상대적 영향력이 만 4세 유아와 만 5세 유아의 경우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혼합연령반을 담당하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행동을 지도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4세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기가 시작되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시기 동안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 양상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만 5세 유아 209명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자료 등과 같이 대규모의 연구대상을 통해 또래놀이행동의 특성과 영향 요인을 파악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이 동일 평정자인 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이는 상관관계에 기초한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제한점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평정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평정자가 변인을 측정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고운지, 김명순 (2013). 유아의 놀이성, 놀이주도성 및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아동학회지**, 34(1), 175-189.
- 김명순, 유정은, 이민주, 조항린 (2011). 혼합연령과 동일연령 학급 구성 및 놀이성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455-471.
- 김선희, 김경연 (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수미, 최진아 (2015). 어머니의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 자기조절 능력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9(2), 39-54.
- 김정림, 허미경 (2013).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 놀이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3(2), 101-119.
- 박혜성 (2011).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호선 (2002).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자기조절행동 발달간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화윤, 마지순, 천은영 (2004). 유아의 놀이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4), 285-298.

신은수, 권미경, 정현빈 (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놀이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83-209.

안효진, 임연진 (2010). 유아의 놀이성, 적응, 그리고 문제행동과의 관계성 연구. **아동학회지**, 31(2), 53-68.

엄정애 (2004). 유아의 충동성 기질 및 사회극놀이 참여도와 자기규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41-58.

우수경 (2013). 어머니의 놀이성과 유아의 성 및 놀이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263-283.

유애열 (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관찰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지희, 김혜연 (2012). 유아기 긍정적,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관련된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301-322.

장윤희, 문혁준 (2011). 유아의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73-87.

정은주 (2005). 연령, 인지양식에 따른 유아의 행동적·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 **영유아교육연구**, 8, 241-259.

지성애, 김승희 (2010). 유아의 자아존중감, 또래상호작용, 놀이성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5(4), 111-127.

지성애, 윤현숙, 박은영, 홍지명, 문수강, 공진희 (2006). 성별에 따른 유아의 대상통제운동능력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0(3), 79-95.

최소영, 신혜영 (2015).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11-329.

최혜영, 신혜영 (201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또래 놀이행동 척도의 타당화. **아동학회지**, 32(2), 35-52.

황윤세 (2007).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Barnett, L. A. (1990). Developmental play norms: A repl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1), 99-103.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1), 51-74.

Br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ew York, NY: Guilford Press.

Chiarello, L. A., Huntington, A., & Bundy, A. (2006). A comparison of motor behaviors, interaction, and playfulness during mother-child and father-child play with children with motor delay. *Physical & Occupational Therapy In Pediatrics*, 26(1-2), 129-151.

Cohen, J. S., & Mendez, J. L. (2009). Emotion regulation, language ability, and the stability of preschool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0(6), 1016-1037.

Coolahan, K., Fantuzzo, J., Mendez, J., & McDermott, P. (2000). Preschool peer interactions and readiness to learn: Relationships between classroom peer play and learning behaviors and condu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3), 458-465.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Auerbach-Major, S., et al. (2003).

-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1), 238-256.
- Dennis, T. (2006). Emotional self-regulation in preschoolers: The interplay of child approach reactivity, parenting, and control capac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1), 84-97.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ar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et al.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36-157.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 Sutton-Smith, B. (198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105-120.
- Granlinski, J. H., & Kopp, C. B. (1993). Every rules for behaviors: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3), 573-584.
- Hampton, V. R., & Fantuzzo, J. W. (2003). The validity of 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with urban, low-income kindergarten children. *School Psychology Review*, 32(1), 77-91.
- Hoffmann, J., & Russ, S. (2012). Pretend play, creativity, and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6(2), 175-184.
- Howes, C., & Leslie, P. (1998). Continuity in children's relations with peers. *Social Development*, 7(3), 340-349.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 Lindsey, E. W. (2014). Physical activity play and preschool children's peer acceptance: Distinctions between rough-and-tumble and exercise play.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5(3), 277-294.
- Mendez, J., McDermott, P., & Fantuzzo, J. (2002). Identifying and promoting social competence with African America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consideration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1), 111-123.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4).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9(4), 120-129.
- Olson, S. H., & Kashiwagi, K. (2000). Teacher ratings of self-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A Japanese/U.S. comparis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609-617.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Rentzou, K. (2013). Preschool children's social and nonsocial play behaviors. Measurement and correlations with children's playfulness, behaviour problem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4(4), 633-647.

- Rogers, C. S. (1988). *Measuring playfulness: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uth Western Society of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New Orleans.
- Rubin, K. H., Coplan, R. J., Fax, N. A., & Calkins, S. (1995).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preschooler's social adaptation. *Development and Psychology, 7*(1), 49-62.
- Rubin, K. H., Bukowski, W., & Paker, J. (2001).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571-643). New York: John Wiley & Sons.
- Saunders, I., Sayer, M., & Goodale, A.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fulness and coping in preschool children: A pilot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3*(2), 221-226.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 Spinrad, T. L., Eisenberg, N., Harris, E., Hanish, L., Fabes, R. A., Kupanoff, K., et al. (2004). The relation of children's everyday nonsocial peer play behavior to their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0*(1), 67-80.
- Troxel, W. M., Trentacosta, C. J., Forbes, E. E., & Campbell, S. B. (2013). Negative emotionality moderates associations among attachment, toddler sleep, and later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1), 127-13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emotional control, and emotional instability on their peer play behavior, focusing on age differences. A total of 209 4- and 5-year-old children attending a child care center in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Playfulness Scal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and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Student's *t*-test, Pearson's partial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s with the SPSS software ver. 16.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age difference in young children's emotional control, emotional instability, playfulness and peer play behavior. Second, the factors of emotional control and playfulness significantly predicted young children's play interaction irrespective of age. Third, the factors of emotional instability and playfulness significantly predicted young children's play disruption and play disconnection. Further, implications for the use of early intervention targeting specific emotional control and emotional instability problems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peer play behavior, playfulness, emotional control, emotional instability, young children

논문투고	15.10.15
수정원고접수	15.12.15
최종게재결정	16.01.22